

열정, 노래로 날다



샤이니



루나틱



국카스텐

2009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GYMF 2009·이하 음악페스티벌)이 29~30일 광주시청 문화광장 등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음악페스티벌은 청소년 음악 인재 양성과 국내 대중음악 발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음악페스티벌은 예년과 달리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매인 프로그램인 GYMF 경연대회(13~19세 대상)는 기성곡까지 포함시켰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창작곡만을 대상으로 경연을 진행한다. 작품 접수 마감과 모두 128팀이 지원했고 비공개 음원 심사를 통해 1차로 17개 팀을 선정했다.

2009 광주 청소년음악페스티벌

29~30일 광주시청 문화광장 등

를 모았던 논산 계룡학사 난타팀 '디키즈 아우리', 2008 청소년음악페스티벌 대상팀 '무브잇'이 출연한다.

2부는 그룹 '나비효과' 출신의 김바다, 후지록페스티벌에 참여해 찬사를 받은 멀월로코를 뱀드 '푼부스', '김은 언더그리운드' 등이 출연하는 'GYMF 난장 페스티벌'로 진행되며 3부 GYMF 영스타에는 샤이니와 슈퍼주니어가 출연한다.

행사장에는 홍보 부스와 노천 카페를 운영하며 음반 전시회 등도 개최한다.

29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야제 행사에는 광주 출신 힙합 밴드 '홀리건'과 지난해 광주청소년뮤직페스티벌 대상 수상팀 '레모니 마카로니'가 출연한다. 또 청소년



오월에 보는 창극

'열사 유관순' 공연

광주시립극단, 19~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2009년은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광주시립극단(단장 송순섭)은 제38회 정기 공연 작품으로 유관순 열사의 삶을 그린 창극 '열사 유관순'을 무대에 올린다.

19~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국극단은 광주 공연에 이어 국비를 지원받아 대구 등 지역 순회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극 '열사 유관순'은 서편제판소리 대가 박동실 명창의 창작 판소리를 모태로 한 작품이다.

박동실에 이어 장월중선, 점순 임명창을 통해 오늘까지 전해진 '열사 유관순'은 천안에서 소규모 창극으로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대형 창극으로 선보이기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다.

티켓 가격 1만원, 5천원. 문의 062-510-9338.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지오니 감독 업무 시작



하기 위해 첫 시 행한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에 참가하게 될 수강생들도 선발하게 된다.

오는 6월에는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석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 만찬을 열고, 각국의 미술계 인사 20~30명을 대상으로 광주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탈리아 출신인 지오니 감독은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2003년)와 세계적인 미술 전문지인 플레이시아트 인터내셔널의 편집장(2000~2002년)을 역임하는 등 현재 가장 주목받는 신예 기획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예술고 교사들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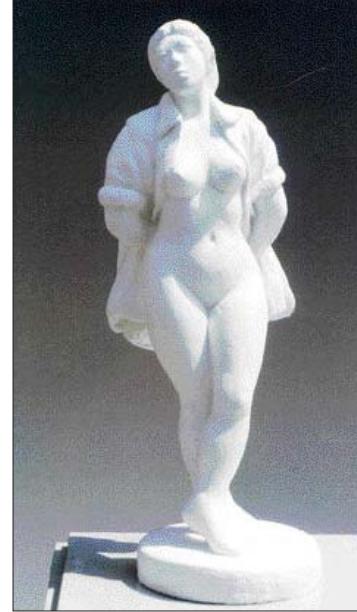
25일까지 국윤미술관

있는 붉은 공을 그린 'RED BALL'을 선보인다.

또 최지연 강사는 도발적인 여성의 뒷모습을 표현한 '알파걸'을, 김동준 강사는 버려진 종이 상자에 광부의 얼굴을 그린 '주연들'을 각각 출품했다.

윤영월 교장은 "섬세한 감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예술에 대한 열정과 낭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전시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2년 개교한 예술고등학교는 그동안 3천500여명의 예비작가를 졸업시켰으며, 이를 중 3천여명은 국내 유명 미술대학에 진학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대 이구용, 조선대 김종경 교수, 서수경 작가



윤영월 작 '포즈'

등이 이 학교를 졸업한 뒤 활발하게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율성기념사업회 7천명 생가 방문 기념 사진전

음악가 정율성의 생

가 위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동구 불로동 출생을 주장하는 정율성기념사업회가 13일 7천여명 생가 방문 기념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사진>



불로동 생가는 지난 2006년 3월 중국 문화부 왕릉장관을 비롯, 강서성 여흡명 당시기, 호원 남참 시장 등 중국 인사들이 다녀갔으며 지난 9일 한·중문화교류협회 중국 유학생 대표단이 방문하면서 7천명을 넘어서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문의: 064-744-1109

미안민족은 아니라 묘방할 수 있는 특허 기술, 척추 건강을 위한 의자 선택 - 바우인닥터

바우인닥터는 올바른 척추 보호 뿐만 아니라 이미 흐트러진 체형도 바로 잡아줍니다.

이후의 철반은 많아지는 사람
바우인닥터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판매처: 남광주사거리 안보카구

062-225-5100

바우인닥터
www.bauindukter.com